

‘순천철쭉’ 전국 첫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연평균 기온 13.8도 ‘온난’ 배수성 우수한 토양 브랜드화·품질향상으로 생산농가 소득 기대

순천시는 ‘순천철쭉’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전국적으로 순천철쭉의 명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 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지리적 특성과 가치를 공인하는 중요한 인증 기준이다. 이는 그 지역의 특산물 생산(가공)자 단체에게 독점적 배타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연평균 기온 13.8도로 온난하고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철쭉류가 생산되기 알맞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쭉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생산지이며, 관내 조정수 생산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 정원수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순천정원문



순천철쭉 재배품종(왼쪽부터 자산홍·영산홍·백철쭉·석암).

화산업발전협의회는 ‘순천철쭉’의 특허권자로서 특산물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브랜드화 및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 철쭉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철쭉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철쭉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 생산농가들과 함께 순천철쭉을 적극 홍보하고 차별화해 부가 가치를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수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 만덕교차로 개선사업 ‘엑스포고가교’ 전면 개통

국도 17호선 만덕교차로 개선사업인 ‘엑스포고가교’가 오는 10일 준공됨에 따라 고가도로 왕복 4차선과 회전교차로 등 하부 도로 1차로가 10일 전면 개통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국비 216억 원을 들여 만덕교차로 인근 360m 구간에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를 개설했다.

고가도로 명칭은 주민의견수렴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수엑스포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상징성을 반영해 ‘엑스포고가교’로 선정됐다.

‘엑스포고가교’ 개통으로 교통사고 감소, 교통정체 해소 등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돼 여수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3여 년의 긴 공사기간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여수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관련 국비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감성마케팅 펼친다

일산 킨텍스에서 내일부터 나흘간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의 가치 및 비전 브랜드

광양시가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이라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감성마케팅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관광박람회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열리며, 광양시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직접 만나며 광양관광의 가치

및 비전을 브랜드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광양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방문객들의 흥미를 끄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어 야경 명소, 숨은 관광지 등 광양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매실농축액, 꽃감빵, 매실장아찌 등 광양의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선보여

관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전라남도과 광양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관을 꾸려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맛을 연계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이번 관광박람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행수요와 여행 욕구

가 억눌린 잠재 관광객들을 견인할 수 있는 감성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관광, 로컬관광, 챗GPT 등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를 공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자치단체, 기관, 업체 등이 운영하는 4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장마 끝’ 별교읍 장도리 집중 방역 소득 추진

보성군은 지난 8일 별교읍행정복지센터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 소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보성군의 유일한 섬 별교읍 장도리(대촌, 부수) 지역 거주민 197세대 301명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별교읍행정복지센터는 맞춤형 방역반을 편성해 장도리 선착장 및 해안 돌레길(13.8km), 하천, 풀숲, 웅덩이, 굴터 등 해충 취약지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해충 연막용 살충제, 기피제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수인성 감염병 집단 발생을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운영 중이다.

맞춤형 방역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해 주민들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성=김명순기자

고흥군, 고흥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터미널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대



고흥군은 고흥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및 고흥을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고흥버스터미널은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고흥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택시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가 올 때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사업자 및 인근 상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 36m 길이의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계기로 우천 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기사들에게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남면 두룩여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 건립

여수시와 아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심명남, 이하 위원회)가 9일 남면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남면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는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9일 남면 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분들의 안식을 기원코자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 3일 독정마을에 건립됐다.

이번 추모비는 지난 2022년 8월 아야포에 세워진 ‘심장에 새긴 아야포’에 이은 두 번째 남면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 추모비다.

9일 오전 남면 화대 독정마을에서 열린 제막식은 사전 당일인 8월 9일에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희생자 유족 및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막식 현장은 지난 3일 아야포 추모제와 같이 사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여수시민 및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